

이병기 청문회 ‘차떼기’·‘北風’ 공방

野 “국정원장 자격있나”...이 후보자 “깊이 후회” 최양희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논란

국정원 직원 촬영 논란 파행도

7일 시작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북풍’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당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불법자금을 받아 적발됐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후보자는 정치자금 연루와 관련해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이른바 ‘북풍’ 사건과 ‘선거 자금 차떼기’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정원 직원들의 야당 의원 사찰 논란 끝에 회의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금 제 뒤에서 저의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 명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매도 및 매입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농지 전용 의혹과 관련, ‘농지에 채소를 심었다’는 최 후보 해명을 거론하며 “잔디와 고추 융합이 창조경제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병역특례 기간 프랑스 유학, 포스코 ICT 사외이사 시절 1억 원대 소득 신고 누락과 프로젝트 수수료 등 주로 도덕성 문제도 도마

에 올랐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 수장으로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답변에 나선 최 후보는 “농지전용 의혹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내가 고추는 잘 몰라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분증 보여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에 야당 의원들의 책상에 놓인

질의자료를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재보선 호남 3곳 후보 확정

광주 광산을 송환기 순천·곡성 이정현 나주·화순 김종우

담양·함평·영광·장성 이중효씨 출마 권유 중

새누리당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7·30 재보선에 나설 후보로 광주 광산에 송환기 당협위원장, 순천·곡성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주·화순에 김종우 전 나주동강농협조합장을 각각 최종 확정했다.

또 경기 수원정(영통구) 후보에 입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수원을(권선구) 후보에 정미경 전 의원, 평택을 후보에는 유익동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공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 대덕 후보로 정용기 전 대전 대덕구청장, 충북 충주 후보로는 이종배 전 충주시장, 울산 남구를 후보로는 박광우 전 울산시장을 각각 선정했다. 수원을과 충주, 울산 남구들은 여론조

사 경선을 통해, 평택을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총 15개 선거구 가운데 모두 9곳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담양·함평·영광·장성에는 6·4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9.55%의 득표율로 낙선한 이중효 전 후보의 출마를 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한 출마 설득작업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지사가 고사하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태안에 예비후보인 한상철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지사가 고사하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태안에 예비후보인 한상철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지사가 고사하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전 대덕 후보로 정용기 전 대전 대덕구청장, 충북 충주 후보로는 이종배 전 충주시장, 울산 남구를 후보로는 박광우 전 울산시장을 각각 선정했다. 수원을과 충주, 울산 남구들은 여론조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사이트 특정 지역·인종 혐오 발언 심각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목소리로 공동 대처해야”

박주선 의원,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 해결 모색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최근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심각해지는 특정 지역 및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일베 및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혐오 발언 현상 진단(주동식 지역차별복시민행동 대표) ▲한국의 일베와 일본의 넷우익 특성 비교(고재열 시사인팀장)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과 요건(박경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NS를 통해 이해하는 혐오 발언의 분석과 대안

(이승훈 새누리당 모바일정당 민간위원) 등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혐오발언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출신 지역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해결을 근원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각 분야의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목소리를 모아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여야 원내지도부 10일 청와대 회동

야당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회기내 처리 노력키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오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전 10시30분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대통령과 회동하기로 했다”면서 “시기가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진솔하게 전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청와대 회동은 오후로 예정됐지만 이날 국회 세월호 국정위청와대 기관보고가 잡혀있어 오전으로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10시30분으로 시간 조정은 박 원내대표가 요청해 받아들였다”면서 “들러리란 있을 수 없고 가능하면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소통을 위해 가능한 한 자주 이런 기회가 있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회가 너무나 청와대와(접촉) 기회가 없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우리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소망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10일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를 하는 날이어서, 김 실장의 기관보고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회동 안건과 관련하여 이 원내대표는 “의제가 정해지기보다 국정 전반에 걸친 이야기 오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관련해 민심을 전달하고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김영란법 등이 의제”라고 명시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간사로 구성된 여야 합의체를 구성,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김영란법·유병언법 등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 회기 중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림’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NAVER **단비플라워**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